

고성지역 초교 급식비 전액지원

고성교육지원청 고성군과 협의... 친환경 급식 체계도 구축

학교급식비 전액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간성초, 거진초, 거성초, 천진초 등 4개 초등학교에도 급식비가 전액 지원된다.

고성교육지원청은 지난달 25일 그동안 기준에 미치지 못해 지원되지 못했던 이들 4개 초등학교에도 급식비를 전

액지원하기로 고성군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고성교육지원청은 이와 함께 친환경 급식 실행을 위해 고성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쌀의 안정적 수급체계 구축 사업에 고성군과 1대1 지원 방식으로 연간 4천445만4천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성교육지원청은 “이번 지원으로 지역주민의 급식비 부담을 줄이고, 고성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쌀의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며, 학생들에게는 균형 있고 알맞은 영양공급으로 우수한 급식을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저소득층 긴급 집수리사업 추진

고성군은 난방 및 안전문제 등 긴급 수리를 요하는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자활센터 집수리자활공동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저소득층 긴급 집수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진행되는 저소득층 긴급 집수리사업은 지붕누수, 보일러파손 등 긴급한 사안 발생 시 신속하게 시행해 주민의 복지만족도를 높여 준다.

사업비 2천500만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타 읍면장이 추천하는 저소득층 등 총 50세대를 대상으로 가구당 50만원씩을 지원한다.

지금까지 11세대가 도배·장판교체, 보일러 교체, 지붕개보수, 화장실 개보수, 생활재난취약 시설정비 등의 사업을 완료했으며, 앞으로 39건의 사업을 더 추진할 수 있다.

최광호 기자

“자존심 지켜달라는 명령 이행하겠다”

4.27 도지사 보궐선거 민주당 최문순 후보 확정... 선대위원장 한명숙 전 총리

최문순 전 국회의원이 4.27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민주당 후보로 확정됐다.

민주당 경선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오후 춘천시 은의동 춘천정당사무소에서 손학규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4.27 도지사 보궐선거 후보로 최 의원이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최 후보는 2천7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당원 전수조사와 3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일반국민 여론조사에서 조일현 후보(29.0%)와 이화영 후보(15.2%)를 제치고 55.8%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최 후보는 당선소감에서 “강원

도의 자존심을 지켜달라는 도민의 명령을 한 치도 틀림없이 이행하겠다”며 “앞으로 야당 및 시민사회단체와 힘을 합쳐 도민의 염원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또 “손 대표가 분당에 출마하게 돼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정신 차려보니 (분당에) 나가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 같다. 큰 바람을 일으켜 제가 쉽게 바람을 타고 가게 해달라”고 말했다.

춘천 출신의 최 후보는 춘천고와 강원대를 졸업한 뒤 1984년 MBC 기자로 입사, 노조위원장을 거쳐 2005년 MBC사장이

됐으며 2008년 총선 때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한명숙 전 총리가 최문순 도지사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직을 수락했다.

민주당 이낙연 사무총장은 “당초 한총리는 최 후보의 후원회장 자격으로 선거 유세를 돕기로 했으나, 오늘 강원도에서 위원장직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공동 선대위원장은 강원도에 지역구를 둔 최종원 도당위원장, 박우순 의원, 이장복 전 의원 그리고 경선에서 떨어진 조일현, 이화영 예비후보 등이 맡을 예정이다. 최광호 기자



지난달 31일 4.27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민주당 후보에 선출된 최문순 예비후보가 지지자들의 성원에 손을 들어 화합하고 있다.

“정정당당한 승부를 기대한다”

한나라당 도당, 최문순 후보 확정후 성명서 발표

한나라당 강원도당은 민주당 최문순 후보가 도지사 보궐선거 후보자로 최종 확정된 직후 ‘정정당당한 승부를 기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나라당 도당은 성명서에서 “예상대로 최문순 후보가 4.27 보궐선거의 민주당 도지사 후보로 선출됐다”며 “본선 후보로 결정된 만큼 곧 결정될 우리당 후보와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길 기대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도당은 또 “이번 선거는 강원도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그 어느 선거보다 중요한 만큼, 비전과 정책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도민의 선택을 받을 것을 요구한다”며 “한나라당은 이번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한 가운데 도민을 통합하고, 강원도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는 선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3명의 한나라당 예비 후보들은 합동 연설회와 TV 토론회를 끝으로 사실상 경선 일정을 마무리하고, 3일 직접 경선 투표와 전화 여론조사를 병행해 최종 후보를 발표한다.

한나라당 도지사 후보 선대본부장에는 3선 강원지사 출신인 김진선 전 지사가 거론되고 있다. 최광호 기자

4.27 재보궐선거 차질없이 추진

행안부, 공무원 선거중립·법정선거 업무 철저히

행정안전부는 예년에 비해 비교적 큰 규모로 치러지는 4.27 재보궐선거가 투명하고 깨끗한 공명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해당 지자체에 공명선거 추진 지침을 시달렸으며, 시·도 부단체장을 통해 공명선거 실천을 주문하고 있다고 했다.

또 선거 종료시까지 특별감찰단을 운영해 공무원의 선거관련 및 줄서기와 민생현안 방치 등을 집중 감찰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와함께 경찰관서별로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후보자

등록 시작일인 이달 12일부터는 ‘수사상황실’로 확대해 24시간 불법선거운동 단속 업무를 펼친다고 했다.

행안부는 이달 1일부터는 지자체에 ‘공명선거관리상황실’을 운영해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투표가 끝날 때까지 빈틈없이 관리해, 이번 선거가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공명선거는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이뤄지기 어려우므로 후보자와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최광호 기자

간첩·테러범·방산스파이·사이버테러·군사보안 신고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37번, 국군 기무부대로!